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진드기 전염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민관 연구 협력 발표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Wadsworth Center Laboratory)와 Regeneron Pharmaceuticals, Inc. 참여 라임병 진단 기술 개선 및 새로운 치료법 개발 목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진드기 전염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신규 민관 연구 협력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와 Regeneron Pharmaceuticals, Inc.가 협력하여 라임병을 위시한 진드기 전염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진단법을 잠재적으로 개선하고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Regeneron Pharmaceuticals, Inc.는 생명공학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민간 협력으로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생명공학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Regeneron과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는 함께 보건 연구를 발전시키고 라임병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치료법을 개발하며, 진드기 전염병에 관한 대중 지식의 맹점을 해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욕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 과학 산업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주민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주에 투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드기 매개 질환, 특히 라임병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병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실시하면 라임병 환자 대부분은 2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검증된 라임병 진단법은 지난 4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진단법은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시점에 진단 기법을 사용하면 환자와 의료진을 좌절시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Regeneron과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 때 병의 원인 인자인 박테리아 *Borrelia burgdorferi*가 어떻게 질병을 옮기는지와 숙주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공동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로 진단법 개선, 예방 및 신규 치료법 개발이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Regeneron은 5년 동안 해당 연구에 최대 4,8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주는 Regeneron 연구 비용의 50%를 보전하여 뉴욕주 생명과학 이니셔티브(New York State Life Sciences Initiative)를 통해 총 2,400만 달러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명과학 이니셔티브를 통해 최대 600만 달러를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에 지원할 것입니다.

Regeneron과 뉴욕주 보건부의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 사이의 혁신적인 이번 협력은, 주도 지역에 위치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웨즈웨스 센터 공중 보건 연구소 건설 지원을 위해 Cuomo 주지사가 약속한 7억 5,000만 달러 지원금에 기반합니다. “21세기 실험실”(“A Lab for The 21st century”)로 재설계된 웨즈웨스 센터는 미래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 직원, 방문 연구원, 회사 임원 및 학계 파트너가 분야와 경계를 넘어 혁신과 가치 창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공공 보건 연구소 중 하나인 이 최첨단 연구시설과 공동 투자는, 주도 지역 생명 과학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주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 헌신을 잘 보여주는 뉴욕주 대표 프로젝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는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뉴욕주 보건부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 연구소로서 1세기 이상 우수성을 입증해 온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는 임상 및 환경 테스트를 기초, 응용 및 병진 연구와 융합하는 최고의 생의학 연구소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구소 연구원들은 인간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환경 및 생물학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고전 및 현대의 접근법을 모두 사용하며, 이는 Regeneron과의 협력을 뒷받침합니다.

Regeneron은 뉴욕주 태리타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과학 기술 기반 바이오의약 회사로 혁신적 의약품을 발견, 개발 및 제조합니다. Regeneron은 1988년 뉴욕시에서 생명공학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다음 해 뉴욕주는 당시 주지사였던 Mario Cuomo의 리더십 하에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50,000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수년만에 뉴욕주는 이 투자로 300%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Regeneron은 뉴욕주에서 가장 큰 생명공학 회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이며, 뉴욕주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인가받은 여러 치료법과 강력한 화합물 파이프라인을 모두 개발하였습니다.

Regeneron은 주요 전염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치료법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독점적인 *VelociSuite*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이렇듯 질병에 빠르게 대응하는 Regeneron의 역량으로 *VelociGene* 및 *VelociImmune* 기술을 적용하여 특정 병원균에 대응하는 인체 항체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유전적 인간화 모델을 개발해 이러한 항체를 테스트 및 검증함으로써 잠재적 치료법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회사는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 연구용 에볼라 치료제인

REGN-EB3를 제공하여 계속되는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n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Regeneron과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 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뉴욕주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연구 클러스터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부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연구원 중 일부의 본진이며, Regeneron과 같은 일류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치료하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서는 뉴욕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Regeneron 최고경영자이자 의학박사인 **Leonard S. Schleif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자랑스러운 생명공학 기업으로서, 뉴욕주를 혁신적인 생명과학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와 협력하여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단 및 치료가 극히 어려운 진드기 전염병의 잠재적 치료법을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라임병 및 진드기 전염병 퇴치 태스크 포스 팀(Task Force on Lyme and Tick-Borne Diseases) 의장 **Sue Ser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저는 부정확한 라임병 진단법과 진드기 전염병 치료법이 발전하지 않아 심각한 고통을 겪은 수많은 뉴욕 주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Kemp Hannon 상원의원과 함께 라임병과 진드기 전염병에 관한 주정부의 대응 방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공동 청문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당시 Kemp Hannon 상원의원과 저는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중요한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라임병 및 진드기 전염병 퇴치 상원 태스크 포스 팀의 의장으로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짓 음성 반응 및 부정확한 결과는 과거의 일이 되고, 뉴욕주의 환자가 응당 받아야 할 효과적인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Neil D.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 치료 및 서비스 업계의 성장은 뉴욕주 경제의 주요 경제 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지사님께서서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해 주셨기에, 교육 기관을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원을 유치하며, 수많은 뉴욕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라임병과 같은 질병 치료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주도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공 연구 작업을 통해 계속해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와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신 Regeneron에게 감사드립니다.”

Patricia 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종합 생명과학 이니셔티브로 여기 주도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혁신적인 보건 증진 사례의 일환이 되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원을 업스테이트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와 Regeneron이 이미 성취한,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 개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뉴욕 주민께 새로 개발한 진단법과 치료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임병과 진드기 전염병은 특히 뉴욕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건 문제입니다.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 연구를 발전시키고 문제에 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민간 파트너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Regeneron과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새로운 투자로 주도 지역에서 발견한 자산을 활용하여 진드기 전염병에 맞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Daniel P. McCo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주도 지역의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가 새로운 라임병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에서 성장 중인 생명과학 연구 클러스터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파트너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뉴욕 주민들은 진드기 전염병의 위험성을 상기합니다. 이번 공동 민간 파트너십으로 세계 최고의 과학자 및 보건 연구자들을 한데 모아 주도 지역의 최상급 공중 보건 연구소에서 새로운 치료법과 예방책을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 공중 보건 사업을 지원하고 올버니의 웨즈웨스 센터 연구소에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생명 과학 계획(Life Science Initiative)

2018 회계연도 예산에는 뉴욕주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클러스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를 상업화하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정부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주지사의 다각적인 계획에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를 생명 과학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1억 달러, 생명 과학 연구 및 개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life scie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refundable tax credit program)을 위한 1억 달러, 기타 투자 형태의 3억 2,000만 달러 등이 있습니다.

습식 연구실 및 혁신 공간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이니셔티브는 민간 부문에서 조성한 최소 1억 달러의 추가 매칭 펀드를 활용하는 초창기 생명과학 회사의 투자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의 자본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는 바이오기술, 의약품, 바이오메디칼 기술, 라이프 시스템 기술 분야를 포괄하며, 노력의 대부분을 다양한 단계의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에 투입하는 조직과 기관도 포함합니다. 매일매일, 이 분야의 회사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또는 자폐증과 암 등의 질병의 조기 검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의료 및 제약 돌파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농업 및 환경 바이오기술 분야에서도 현저한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설에 투자하며, 인재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뉴욕은 산업계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뉴욕의 지분율을 현저히 증대시키고, 기존 학문적 연구의 상업화를 지원하며, 차세대의 고급 기술이 도입되게 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발전 외에도, 이번 이니셔티브로 제조업 기반의 신흥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지역으로서 뉴욕주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